

소련의 對中東政策 (下)

白根旭

(延世大 대학원 정치학과)

第5章 소련의 對中東석유정책과 제약요인

本章에서는 소련의 對中東석유정책을, 먼저 전술적 성격이 강조되는 쌍무관계전개와 中東진출 거점구축이라는 측면과, 그리고 전략적 성격이 강조되는 圍繞戰略전개와 영향력 강화라는 측면을 통해 살펴보고, 然後 소련이 對中東석유정책을 전개해 나감에 따라 수반되는 제약요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第1節 소련의 對中東석유정책

1. 雙務關係전개와 中東진출거점구축

소련이 1950년대 중반에 中東개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이래로, 소련은 中東內 급진산유국에 대한 쌍무관계 전개를 통해 中東진출의 거점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구해 왔다. 소련이 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온 것은 ① 中東內 급진산유국들에 대한 접근을 통해 中東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할 수 있었고, ② 對東歐原油공급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중개인 역할의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쌍무관계를 활용한 中東침투의 대상을 中東內 급진세력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 급진세력은 君主制를 타파하고 공화국형태로 전환하여, 西方에 대한 反帝國主義, 反侵略主義, 反植民主義를 주창하고 있어서 역사적으로 中東지역에 대한 식민지배의 전례를 갖지 않은 소련으로서 이

들 세력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소련의 이들 세력에 대한 접근은 소련의 中東石油政策의 궁극적인 목표지인 페르시아灣 지역에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을 위해서였다.

실제로 페르시아灣 地域에는 두가지 형태의 군주제가 있다. 그 하나는 封建君主制이고, 다른 하나는 近代君主制이다. 양자 모두가 보수주의성향이 강하고, 또한 石油를 대량으로 매장하고 있어 서방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온 까닭에, 소련의 이들 지역에 대한 접근에는 제약이 따랐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은 石油를 대량으로 매장하고 있으면서 현상유지를 選好하는 보수적 진영이 위치한 페르시아灣남쪽 지역보다는, 페르시아灣北쪽 지역에 위치한 Northern Tier 지역과 그에 인접한 지역에서 개혁을 추구하는 이라크, 시리아 등의 급진세력과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한 국가들에 침투하려 했다. 이들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에 대해 소련의 접근을 촉진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 지역이 이집트나 비옥한 초생달지역(Crescent Area)의 이상적인 탱크작전지역과는 달리, 산악지역이어서 장예물을 제공하는 天惠의 지역조건을 갖추었다는 점과, 둘째, 이들 지역의 인구가 餘他아랍지역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많고, 또한 호전적인 기질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셋째, 西方帝國主義 국가들의 국가이익이 직결되어 보호를 자처하고 나설 만큼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매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다.

소련의 아랍급진세력에 대한 접근은 바터협정을 통한 雙務관계형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소련의

이라크 접근방식은 그 典型이 되었다. 1958년 카심 쿠테타에 의해 君主政에서 공화정으로 전환한 이라크가 석유산업의 국유화조치를 취하고 나서 西方메이저의 반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소련은 궁지에 처한 이라크에 石油시장을 제공해 주고, 또한 이라크석유산업의 재건에 소요되는 설비, 기술, 자본 등을 제공해 주는 대신, 대가를 이라크産 原油로 상환받는 바터협정을 체결하여 中東진출의 거점구축을 위한 쌍무관계를 형성하였다. 소련은 알제리, 시리아, 리비아의 접근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였다.

소련의 아랍급진세력에 대한 접근방식은 원래 소련이 이란과 이집트에 대한 접근에서 시도된 방식이었다. 소련은 이란에 대한 서방의 관심과 이집트의 독특한 민족주의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의 근거 구축을 실현시킬 수 없었다.

소련이 아랍急進산유국이 아닌, 紅海입구에 위치한 이디오피아와 남예멘 그리고 호르무즈해협을 공격반경내에 둔 아프카니스탄에 교두보를 구축한 것은, 소련이 이들 국가를 연결하여 형성되는 페르시아灣지역 圍繞전략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소련은 雙務關係전개방식을 활용해오면서 부분적으로 실패도 경험하였으나, 中東진출의 교두보 구축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아랍急進産油國들과 바터협정을 통해 수입한 原油를 활용하여 자신의 對東歐原油공급부담을 경감해 보려 했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2. 圍繞戰略전개와 소련의 영향력 강화

소련의 對中東석유정책은, 전술적인 면에서 쌍무관계전개를 통해 페르시아灣지역진출의 교두보 구축에 치중해 왔고, 전략적인 면에서는 페르시아灣지역에 대한 圍繞戰略전개를 통해 이 지역에 대한 궁극적인 패권장악에 치중해 왔다.

쌍무관계를 통해 구축한 전략거점을 연결하여 전개되는 소련의 페르시아灣지역에 대한 圍繞戰略은 ① 향후 10년내에 야기될 수 있는 소련의 中東石油의존사태에 대비하고, ② 東歐제국의 中東原油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환경을 中東산유국간에 형성시키고, ③ 中東석유에 의존이 심한 西方 국가의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줄이고, 대신 자신

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데 그 구상의 목적을 두고 있다.

소련이 구상한 圍繞戰略의 대상으로서의 페르시아灣지역은 1970년대에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첫째, 英國이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포기와 철수를 선언하였고, 둘째, 西歐산업 국가의 페르시아灣 지역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이 페르시아灣 지역에서의 西歐세력의 영향력이 감퇴되고 있고 이 지역에서의 힘의 상호관계가 자신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하게 됨에 따라, 소련의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은 적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소련은 이 지역에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우디 아라비아였으므로, 주변을 급진화시켜 중심을 전복하는 간접적인 전략을 택하려 했다. 리야드에로의 길은 아덴, 사나, 머스켓을 통해 펼쳐져 있다고 한 레닌의 표현은 이 전략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가 되고 있다.

소련은 1979년의 아프카니스탄침략을 자행함으로써 石油海上兵站線의 길목에 위치한 리비아, 남예멘, 이디오피아, 그리고 아프카니스탄을 연결하는 對페르시아灣 油田지역포위망을 구축하였다. 그것은 첫째, 何時라도 西方石油수출로를 차단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 둘째, 가까운 장래에 자신 내지 동맹국의 필요에 의해 中東石油에 의존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셋째, 페르시아灣 지역에서의 原油공급과 이 지역에 대한 자유접근 보장을 상의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이 지역 石油使用者會議가 소집되어야 한다고 제의하는 소련이 구상했던 페르시아灣지역 圍繞戰略이 실제로 전개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페르시아灣지역에 대한 圍繞戰略전개 이전부터 이 지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강화를 모색해 왔다. 소련은 첫째, 활발한 선전과 외교를 통해 페르시아灣지역에서의 美國의 역할에 대해 불신감을 불러 일으켰고, 둘째, 일련의 親蘇聯거점확립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켰고, 셋째, 페르시아灣 주변지역에서의 혁명·전복운동의 지원을 통해 페르시아灣지역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했다. 소련은 두번째 방법을 통해 圍繞戰略전개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소련국경의 남부지역에 위치한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이 맥킨더(H. J. Mackinder)가 지적하는 하아트

랜드(Heartland)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소련의 페르시아灣지역에 대한 圍繞戰略의 전개는 이 지역에 대한 소련의 팽창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日本の 倉前盛通교수는 1980년에 자신의 저서 「新惡의 논리」에서 맥킨더의 「하아트랜드」 이론을 발전시켜 「하아트랜드·아프리카」 回廊理論을 제시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1978年 한해 동안에 아프가니스탄과 남예멘 두 나라에 공산주의정권이 수립되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군사행동의 목적은 소련이 아프리카에 진출하기 위한 「回廊」 형성에 있으며, 이것이 하아트랜드와 연결되어 결국에는 「世界島」 지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그 회랑에 페르시아灣의 호르무즈 해협과 아프리카角地帶(Horn of Africa)의 밥-엘-멘랍해협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이론은 소련의 페르시아灣지역에 대한 팽창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침략을 성공시킴으로써 페르시아灣 남부유전지대를 포함한 페르시아灣지역 圍繞戰略을 실제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소련이 국내原油增産둔화에 봉착함과 동시에 東歐 제국에 中東석유수입을 강력히 촉구했음을 고려해 볼 때, 소련의 中東石油사용을 위한 페르시아灣지역 팽창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배제되기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우기, 東歐제국이 石油의존을 위해 中東間 급진, 온전산유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련 역시 石油危機時 中東穩健産油國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소련의 페르시아灣지역 팽창가능성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의 페르시아灣지역에 대한 圍繞戰略의 전개는 1980년대 후반의 소련의 對中東石油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第 2 節 · 소련의 對中東石油政策의 제약요인

소련의 對中東석유정책의 핵심대상지역인 페르시아灣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의 3대륙을 잇는 교량적 위치에 있으며, 소련에 인접해 있어 소련의 팽창주의적 정책의 통로가 되는 지리적 특수성을 갖고 있고, 또한 서방세계에 대한 石油의

供給源으로서 전세계확인매장량의 57%가 부존되어 있기 때문에 1970년대를 통해 그 전략적 가치가 고조되었고, 서방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따라서 소련이 페르시아灣지역이 중심이 된 中東지역에 대한 石油政策을 전개하는데는 많은 제약요인이 수반되었다.

일반적으로 소련의 對中東政策전개에 수반되는 제약요인으로는 ① 아랍民族主義의 대두, ② 이슬람의 부활, ③ 이념적 양립불가, ④ 지역내 분쟁과 불안정, ⑤ 열강의 세력각축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 中 소련의 對中東石油政策전개에 있어서도 제약요인이 되는 것은 지역내 분쟁과 불안정, 그리고 열강의 세력각축이라 할 수 있다.

아랍民族主義의 대두, 이슬람의 부활, 이념적 양립불가 등도 소련의 對中東石油政策전개에 있어 장애요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은 소련의 對中東정책의 제약요인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소련의 對中東石油정책의 제약요인으로 간주되기는 어렵다.

소련은 反帝國主義를 주창하면서 아랍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아랍급진세력에 대한 침투를, 그들과의 바터협정을 통해 해울 수 있었으나, 1973년 石油武器化政策을 수행하면서 실세화되었던 아랍민족주의가 소련의 中東침투 역시 帝國主義視하게 됨에 따라, 소련의 對中東석유정책은 그 전개에 있어 아랍민족주의의 성장과 自主路線의 확립을考慮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79년 이란에서의 회교혁명을 통해 부활하기 시작한 이슬람正統主義의 부활은 西歐제국의 압력에 노출되기 쉬운 아랍세계의 근대화정책지향의 포기와 외세개입의 단호한 거부를 의미하였다. 소련의 中東진출의 여지를 제공해 주었던 이슬람근대주의 세력의 감퇴는 자연히 소련의 中東의 場에서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게 되어 소련의 對中東石油政策전개에 있어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對中東정책의 제약요인이 제기하는 제약은 소련의 對中東石油政策전개에 수반되는 제약요인이 제기하는 제약과는 차이가 있다. 소련의 對中東石油政策의 제약요인은 중동지역내적 요인인 지역내 분쟁과 불안정, 중동지역외적 요인인 열강의 세력각축으로 대별된다.

1. 지역내 紛爭과 불안정

소련의 對中東石油政策을 전개함에 있어, 中東 지역내에서 제기되는 제약요인으로는 中東지역내에서 빈발하는 분쟁들과 그에 따른 불안정을 지적할 수 있다.

中東지역내에서 빈발하는 분쟁들은 상당수가 아랍革命의 多中心主義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 소련은 아랍急進體制의 확산을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이들 체제가 상호간에 반드시 연합하거나 선린관계를 갖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 국가간에 어떤 분쟁이 야기되었을 경우, 소련은 이들 가운데 어느 한편을 택해야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된다. 시리아와 이라크, 이디오피아와 소말리아, 이란과 이라크간의 반목과 대립은 소련에게 그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소련이 대립상태에 있는 국가중 어느 한편만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은, 소련이 그들 상호간의 대립상태가 반드시 서방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련은 이라크와 소말리아에 무기공급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소련은 자신이 이들 국가에 공급한 무기가 서방이익에 반하도록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소련이 관계개선을 희망하는 이란과 이디오피아를 대상으로 이용되어졌을때, 소련은 지원대상을 확실히 해야했다.

1980년 9월 이라크의 선제공격으로 인해 이란과 이라크간에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소련이 지원대상을 확실히 하는 데는 세차례의 태도변화가 있었다. 1980년부터 1982년 사이에 소련은 중립적인 가운데서도 이란으로 기울었다가, 1982년부터 1984년 3월까지의 실질적인 중립을 견지하였고, 1984년 3월 이후에는 이라크으로 기울어졌다. 소련은 이같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對中東石油政策의 궁극적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中東지역내 국가간의 반목과 대립은 지역내 자신의 동맹국들을 통해 聯合戰線을 형성해 보고자 하는 소련의 기도를 좌절시켰다. 소련은 1977년에 남예멘, 이디오피아, 소말리아, 지부티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연방으로 형성되기를 촉구하였지만 실

패하였다. 1977년 이디오피아와 소말리아間에는 오가덴紛爭으로 쌍방간의 대립이 극에 달해 연방형성은 동상에 불과했다.

中東지역내에서 빈발하는 분쟁으로 인해, 페르시아灣지역에서는 불안이 고조되어 왔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1980년의 이란革命,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1980년 9월의 이란-이라크전쟁 등으로 페르시아灣지역의 불안은 극도로 심화되었다. 이같은 상황이 이 지역의 페르시아灣協力協議會 Gulf Cooperation Council :G-C)를 창출하게 하였다. 이 협의회는 페르시아灣지역에 대한 어떠한 외세의 개입도 허용하지 않음을 목표로 하는 灣岸국가들의 결속체로서, 소련의 이 지역 진출에 대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소련의 對中東석유정책의 전개에 있어서 中東지역 내에서 빈발하는 분쟁과 그에 따른 불안은 확실히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련의 對中東석유정책에 있어 페르시아灣 지역의 진출을 위한 근거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 지역에서 야기되는 분쟁과 고조되는 불안이 제기하는 소련의 對中東石油정책 전개의 제약요인은 소련이 극복해야 하는 현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2. 열강의 세력각축

소련의 對中東石油정책전개에 있어 지역내 분쟁과 불안정이 中東지역내적 제약요인이라면, 中東지역외적 제약요인으로는 美·蘇의 대립을 포함한 열강의 세력각축을 지적할 수 있다.

中東지역에서의 美·蘇間의 세력각축의 기본유형은 2차대전의 영향으로 형성되고 나서 계속 복잡하게 되어 왔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는 아직 양극화되어 있고, 中東지역은 여전히 분쟁의 중심지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페르시아灣지역에 대한 소련의 행동과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美·蘇간의 세력각축이었다. 이 지역에서의 소련의 움직임에 대한 美國의 예상되는 반응, 특히 美·蘇간의 직접대결의 위험이 소련의 對中東石油정책에 있어 최종단계의 고려사항이 되었다.

1950년대의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분쟁에서 소련은 이스라엘과 그를 지원하는 美國에 대해 적대적인 아랍제국의 지원자이자 우방으로서 中東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랍제국은 아랍후원자로서의 소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사항들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소련이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의 승리를 보장해 주거나, 외교를 통해 아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다. 아랍제국의 요구사항들은 中東지역내의 역관계를 고려해 볼 때, 소련의 능력한계를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소련이 아랍 세계에서 획득한 既得權의 일부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했다.

소련의 對中東石油정책전개에 있어 소련의 행동에 가장 큰 제약을 가하는 美國의 대응은,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침공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中東지역에서의 美國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이익보호를 선언한 美國의 카터독트린이었다. 美國은 이 독트린을 통해 『페르시아灣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외부세력의 기도도 美國의 국가이익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같은 기도는 군사력을 포함한 여하한 필요수단의 사용에 의해 격퇴될 것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美國은 자신의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첫째, 오만, 소말리아, 케냐에서의 기지모색을 더욱 강화하고, 둘째, 사우디 아라비아에 早期警報期를 제공하고, 셋째, 긴급배치군의 편성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美國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에 대한 경고의 차원을 넘어 페르시아灣 지역에서 자신을 포함한 西方세계의 이익을 위해 보여준 결연한 조치였기 때문에, 소련은 對中東石油政策전개에 있어 美國의 대응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美國의 행동은 中東諸國家로 하여금 소련의 군사력을 뒷받침한 정치적 압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의지를 자극시킴으로써, 소련의 中東지역에서의 활동을 위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소련이 對中東석유정책을 전개하면서 의식해야 하는 또 하나의 세력은 중공이다. 1963년에 中·蘇間的 정식분열이 기정사실화 되자, 이 분열은 中·蘇양국간의 반목을 公的으로 노골화시켜, 蘇聯

외교정책의 案出을 위한 근거로서의 이념적 師團의 결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中共은 第3世界에서의 세력경쟁으로 소련과의 대결을 격화시키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中共은 특히 蘇聯외교가 강력한 교두보를 확립한 지역에 침투하려 했기 때문에, 소련에게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中共의 페르시아灣지역 진출에 따른 소련의 딜레마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념적 변질을 지탄하는 中共에 의해 또한 자신의 감정적 선호에 의해 자극되어져 마르크스主義의 혁명들을 도덕적으로 가깝은 물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통감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험이 통제하기 어렵고 성공에 대한 전망 또한 확실하지 않은 또 다른 단골국가를 선택하는데 對한 자신의 흥미를 상실하게 하는데 있었다.

이처럼, 소련은 對中東石油政策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美國, 中共과 같은 열강의 이지역에 대한 관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소련은 서구세력이 石油資源을 위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페르시아灣지역에 대한 圍繞戰略의 전개가 상당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련이 페르시아灣지역을 圍繞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하는 소련의 對中東석유정책이 본래에도 오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第6章 맺는 말

소련은 1955년 이후에 原油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면서 Oil Offensive 政策을 추진하였다. 소련의 石油정책에 대해 美國 상원의원 키이팅(Ke-nneth B. Keating)은 1962년 美國 상원위원회 보고서 序文에서 그 중요성을 지적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의 Oil offensive 政策은 첫째, 그것이 공산국가의 石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둘째, 그것이 石油가 다른 자원과 대치된 것이며, 셋째, 그것이 잘 확립된 石油價格체제를 분열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넷째, 그것이 蘇聯石油생산의 급속한 증대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당시 소련의 Oil offensive 政策은 서방세계에 큰 반항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지만, 1977년 4월 美國 CIA 報告書가 蘇聯석유장래에 대해 비판적인 견

해를 표하면서, 소련이 1980년대 중반부터는 純石油輸入國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한 전망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그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경우, 西方石油시장질서의 붕괴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현재 소련石油사정으로는 소련의 中東石油에 대한 의존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소련의 석유고갈론에 대한 전망이 현실과 상치되었지만, 소련石油가 난관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이 처한 石油危機는 근본적으로 石油고갈로 인해 야기된 위기는 확실치 아니다. 소련의 原油主生産地인 시베리아에서의 原油중산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대형유전도 발견되지 않고 있고, 설령 발견되어도 개발이 본체도에 진입하는 동안에 소련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사실이 소련으로 하여금 代案으로서의 中東石油 모색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다.

소련은 代案으로서의 中東석유가 주는 잇점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소련은 수에즈運河가 봉쇄됐을 때, 스위치去來(Switch Deal)를 통해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原油공급을 이행할 수 있었다. 또한 石油産業의 국유화조치를 선언함으로써 서방의 압력을 받던 아랍急進산유국에 대한 시장을 제공해 주고, 그들의 石油産業의 재건을 도와주면서, 代價로 보상받은 原油로 중개거래도 할 수 있었다.

소련은 石油를 매개로 정치적 침투도, 경제적인 실리추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자신이 中東산유국들과 바터협정을 통해 수입한 原油를 東歐에 재공급하거나 서방에 재판매하는 중개거래 방식은 石油危機後 油價인상에 따른 산유국의 태도변화로 인해 지속할 수 없었다. 그것은 石油危機를 통해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긴 中東산유국들이 바터협정을 통해 소련에 저렴하게 原油를 공급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代案으로서의 中東石油의 가치를 인식하였던 소

련이 등구제국에게 中東石油구입을 촉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이다. 1次石油危機가 발발하기 전까지 東歐와 中東산유국간의 바터거래가 쌍방간의 필요에 의해 크게 증대되었다. 그러나, 1次石油危機後 中東산유국과 東歐와의 石油바터거래는 中東산유국의 현실주의적 태도에 부딪쳐, 종전같이 증대되지는 못했다. 이는 東歐諸國에 대한 소련의 原油공급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소련은 東歐諸國에 대한 原油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東歐諸國의 中東原油수입을 더욱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러나, 루마니아를 제외한 東歐5개국은 原油수입에 소요되는 硬貨조달에 어려움을 갖고 있어 中東原油수입을 현격히 증대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소련과 東歐제국은 中東原油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中東산유국과의 바터거래를 증대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련은 中東접근에 있어 한편으로 쌍무관계를 통해 中東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한 이들 국가들을 연결하는 페르시아灣 지역 圍繞戰略을 전개하고 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中東산유국들로 하여금 東歐제국과의 石油거래를 증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또한 西方世界로의 原油공급로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가까운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소련 자신의 中東石油의존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79년 12월 자행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페르시아灣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럼으로써 소련은 실제로 圍繞戰略의 전개를 시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이 처한 石油환경을 고려해 볼 때, 소련의 對中東石油정책은 보다 적극적일 양상으로 전개되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企業人은 좋은 製品, 소비자는 바른 消費